



경북 문경·예천·상주

산마다 청정도량 도심엔 신행 열기

문경 문경은 경상북도의 서북단 내륙에 자리잡은 산간지역으로 경북의 관문이다. 산이 많은 지역이라 문경사람들은 땅속 무연탄을 파서 팔고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 생업을 삼았다. 지금은 거의 모든 탄광이 문을 닫았지만 한때 탄광촌에 활기가 그윽할 무렵 불경종 운암사에는 1일 1000여 명에 달하는 불자들이 모여 법회를 봉행했을 정도로 문경은 불교세가 세다. 또 봉암사, 대승사, 윤필암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수행처와 암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신라 진평왕 때 사면에 불상이 새겨진 바위가 공덕봉 꼭대기에 내려앉자, 왕이 바위 곁에 절을 세우고 사면석불에 공양을 올리게 했다는 대승사는 50여 남자가 정진하는 참선도량으로 유명하고, 산내암자 윤필암 또한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구산선문종 하나로 신라후기 지증 대사 도헌 스님에 의해 개창된 회양산문 봉암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조계종립 특별선원이다.

1947년 성철 스님을 필두로 창당·자운·우봉 스님 등 4인이 '오직 부처님 뜻대로만 살아보자'는 원을 세우고 융합정진한 결사도량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향곡·서용·서암 스님 등 근대 한국의 대표적 선승들이 조사를 역임하면서 납자들을 제정했고, 현재 정광 스님이 선원장을 맡고 있다.

봉암사와 대승사가 참선도량으로 유명하다면 한 때 전국 31본사의 하나로 45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김용사는 포교도량, 강원도량으로 빼 놓을 수 없다. 지금도 율령 조사들과 열여덟날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등 수련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김용사는 지역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생활 속의 불교를 전파해 왔다.

그 외 문경에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21개 사찰이 사암연합회를 형성하여 문경불교를 이끌고 있다. 운암사는 시내 문경보전사회복지관과 문경자활센터, 연꽃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복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열의를 세운 산양면 개운사는 젊은 불자들이 즐겨 찾는 포교도량이다. 또, 천태종 문장사와 육천사 역시 문경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지역포교에 동참하고 있다.

김용사 회주 지광 스님은 문경불교의 구심점으로 지역불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스님은 김용사가 관광 사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입구의 흙길과 울창



상주범우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북동동 석불좌상 앞에서 비로자나불 현공대재를 거행하고 있다.



예천 젊은 불자들이 이뤄진 정법회 회원들이 예천불교포교원에서 지도법사 지정 스님과 함께 웃날이를 하며 승속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경불교의 자랑 문경불교대학의 입학식 모습. 올해도 130명 정원을 초과해 150여명의 신입생이 등록을 마쳤다.

한 야생림을 자연 그대로 지켜왔다. 1999년 초 문경 불교대학을 시내에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문경불교대학은 해를 거듭하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해 7기 신입생 모집도 130명 정원을 넘겨 150명이 등록했다. 문경불교대학은 지역 지도층을 불자로 끌어들이는데 한 몫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졸업생들은 기수별 신행회를 조직하여 지역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문경불교의 '행동대장' 문경불교청년회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운영, 문경불교화관 관리 등 온갖 갖은 일을 도맡아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예천 예천은 경북 북단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유교, 불교, 토속문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경주의 신라불교문화권과 색다른 불교문화를 형성했다. 또, 산악화가 가장 안 된 곳이다. 따라서 공장 하나 없는 순수 농촌지역으로 물이 맑고 정이 넉넉하다. '들어올 때 어떻게 살까 걱정해서 울고, 갈 때 너무 정이 들어 온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 주민의 70~80%가 불자인 예천은 청년회가 발전한 정법회를 비롯해 군청봉사회인 연불회, 관음회 등 재가불자 신행단체 활동이 유독 활발하다. 특히 9년 전에 결성된 예천불교연합

- 문경 고찰의 수행가풍 복지·문화 포교로 계승
- 예천 주민 80%가 불자...승·속화합 발전 동력
- 상주 곳감같은 불심...거사림회 등 전법 주도

신도회는 회원 150명을 자랑하며 재가불자들이 아우르고 사암연합회와 협의 하에 예천불교를 이끌고 있다. 예천불교연합신도회장은 사암연합회에서 추대하는데, 현재 예천 군수가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그만큼 예천은 불교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예천사암연합회는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47개의 회원 사찰로 구성돼 있다. 현 사암연합회 회장은 예천불교의 종가집 격인 용문사 주지 청안 스님이 맡고, 두달에 한번은 모임을 갖는다. 예천에는 사암연합회가 자주 모이고 재가불자와 함께 벌이는 불교행사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보통 타 지역불교가 초파일을 기점으로 몇 가지 봉축행사만으로 끝나는 데 비해 예천은 정초부터 신년대례를 웃날이가 벌어지는가 하면 예천불교연합신도회가 주최하는 웃날이대회는 1000여명이 넘는 불자와 지역 스님들이 모

여 예천군 잔치를 방불케 했다. 그 외 연말이면 불우 이웃돕기 일일차집을 하고 삼사 순례도 간다. 특히 지역연주교과와 펼치는 체육대회는 이 지역불교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자랑이다.

지금 예천불교는 불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포교 당 마련과 불교대학 개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암연합회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이를 위해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개괄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곳곳의 사찰마다 나름대로 포교도 열심이다. 용문사가 지역의 종가집으로서 사격을 갖추는데 열심이 라면, 읍내 있는 서암사주지 도일은 틈바구니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어린이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또 명봉사주지 회광의 정갈한 도량관리는 예천불자들을 탄복케 한다. 또 풍양면에 있는 법흥사주지 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운영하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 조선시대 교풍의 요지로 한때 경감도 감영이 설치되었던 상주는 곳감이 유명하며 불심 또한 돈독한 고장이다. 83년 6월 창립한 상주사암연합회는 60여개의 사암연합회 원사찰을 아우르며, 21년 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사찰의 힘을 모아 상락유치원을 설립해 어린이포교에 나섰다. 15년 전에는 교사불자회를 발족시켰고, 96년에는 11개 중등학교에 파라미터 분회를 창립해 일찍부터 청소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 97년부터는 냉림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복지 불사에 나섰다. 경로잔치, 청소년 장학금 수여, 무료 급식 등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상주불교의 정신적 지도로 상주 사암연합회를 이끌었던 前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이 제8구본사 직지사 주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신심이 우랄리 든듯한 지역이 상주다. 유구한 역사와 회원수를 자랑하는 거사림회 범우회가 상주불교를 받치고 있고, 지역 사찰 스님들이 상주불교의 구심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어서 지역불자들은 조만간 옛 상주불교의 모습을 되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경·예천·상주=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영남제일 강원' 복원에 헌신

청안 스님 (예천 용문사 주지·예천사암연합회장)

"내 남은 생 용문사만이 라도 과거 옛 모습대로 제대로 복원시키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1998년 모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 광고를 찍은 후 말 많은 속인을 피해 '피난 삼아' 용문사에 들어왔다는 청안 스님은 지금까지 도로를 정비하고 법당을 비롯한 대장전, 진영당, 자운루, 명부전, 응진전 등 9개 동 전각을 개·보수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운장대가 있는 대장전은 주춧돌까지 들어내고 복원하는 작업을 마쳤다. 스님은 2010년까지 복원불사가 마무리되면 옛 날 영남제일 강원외 명성을 되찾기 위해 강원을 열고 지역복지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예천 사암연합회장도 맡고 있는 청안 스님은 예천불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조만간 예천읍내에 포교당을 마련하고 불교 대학도 열 예정이다.

어린이·문화 포교 앞장

범초 스님 (문경 운암사 주지·문경보전사회복지관장)

1988년부터 92년 사이 영월 보덕사에서 리어카를 직접 끌며 휴지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역 최고의 유치원 불사를 했던 범초 스님은 2003년 3월 문경 운암사에 와서도 연꽃 어린이집, 모전사회복지관, 문경자활센터, 어르신대학 등을 운영하느라 하루해가 짧다. 문경이 탄광촌으로 유명할 당시만 해도 운암사는 수많은 신도들로 붐볐으나 지금은 노 보살들이 주 신도층을 이루고 있다. 항상 젊은 불자 포교에

앞장서는 스님은 합창단을 창단해 포교에 나섰다. 또, 지난 연말에는 예천 서암사, 상주 남장사 합창단과 함께 문경시민문화관에서 합동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스님은 올해부터 거사들을 영입해 혼성 합창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이다. 또 서예반 전시회도 개최할 생각이다.

150명 장애인과 '동거'

정안 스님 (예천 법흥사 주지·예천연꽃마을 이사장)

"이 방은 회로에라과 우여곡절이 많은 방입니다. 소외된 수많은 이들이 거처간 방이지요." 정안 스님은 예천 연꽃마을에 최신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요양시설이 우뚝 들어선 지금도 나지막한 초집 옛 스님의 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15년 동안 도배 한 번 안한 스님의 방은 정갈하면서 친근하다. 스님은 "복지를 하는 사람은 너무 깨끗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구든 항상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79년 지리산 천은사에 있을 때 한 아이가 12월 초 겨울바람을 뚫고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되어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겠노라 발원하게 됐다. 스님은 84년 9월 법흥사에 들어와 인연 따라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을 받아들여 한 식구로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연꽃마을 식구는 이제 150여 명에 이른다.

문경 최고의 유치원 건립

선구 스님 (문경 개운사 주지)

"어린이들이 우리 유치원에서 뛰어노는 생각만 하면 마구 흥분됩니다. 특히 가까이 사는 시골 아이들이 올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포교에 대한 남다른 열의로 작년 12월 문경 최고의 유치원을 준공한 선구 스님은 마지막

개원 준비를 서두르면서 어린이들을 만날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83년 윤필암에 왔다가 개운사에 모셔진 경주유돌부처님이 너무 좋아 개운사를 인수한 스님은 당시 바쁜 농사일로 홀로 내몰린 5~6세의 시골 아이들 10여명을 모아 돌보면서 어린이포교 원력을 키웠다. 스님은 "20년 전 코흘리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잊고 찾아온다"며 "스님과 있었다는 기억으로도 어린이들에게는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오직 소임에 충실할 뿐"

중원 스님 (문경 김용사 주지)

"나는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저 밥 먹고 절 지키는 소임만 할 뿐입니다." 쉽게 특특 던지는 스님의 첫 마디에서 멧힘도 끊어지지 않는 수행자의 시원함이 엿보인다. 김용사 회주 지광 스님의 상좌로 7년 여 동안 스님의 시봉을 맡았던 중원 스님은 전국사찰을 누비며 운수남자의 삶을 살다가 지난해부터 김용사 주지 소임을 맡았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고스란히 불교의식에 담겨 있기에 오직 불교의식에 충실할 뿐 다른 것은 모른다는 스님은 김용사가 전통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도량을 수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항가' 보급 불교문화 알려

지정 스님 (예천 정안사 주지)

4년 전 장안사에 들어온 지정 스님은 장안사를 관광개발이라는 외압으로부터 지켜냈다. 스님은 장안사 곳곳에 법구경과 항가를 게시하여 '다시

가보고 싶은 수행도량'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또, "사찰은 지역신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역민을 위해 노력할 때 살아난다"며 지역민들에게 사찰을 모두 개방했다. 장안사는 지역민들의 손에 의해 기와장 하나 목재 하나가 운반되면서 복원된 곳. 스님은 "겨울철 눈만 오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삼과 비를 들고 자기 집 마당보다 먼저 장안사의 눈을 치우러 온다"고 전했다. 북이 있어 수행자로서 경도 보고, 선도 하고, 삼천배, 백일기도 했다는 스님은 초하루 법문을 모은 법문집을 발간하고, 불교적 신앙심이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인 항가집 보급에도 힘써 오고 있다.

35년 역사 '범우회' 창립

김동출 거사 (상주 범우회 회장)

"종단, 종파, 사찰을 떠나 재가불자 간 얼굴도 익히고 거사들이 나서 지역불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8년 6월 발기인을 조직하고 1969년 1월 범우회를 창립했습니다" 범우회 발족 과정을 들려준 김동출 회장의 목소리에 남다른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 범우회는 매년 봉행되는 초파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연초에는 불교인단체 웃날이를 벌이고 연말에는 불교인승년법회를 등 불자들의 화합과 신심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또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하기도 했고 범우회 사무실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불자들에게 전산교육도 지원해 왔다. 특히 매년 봄 가을 서성동에 있는 북동동석불좌상(보물 제119호)에서 봉행하는 비로자나불 현공대제는 불교문화재를 재가불자들이 가꾸고 돌보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불심으로 화합 이끄는 '군수님'

김수남 거사 (예천불교연합신도회장·예천군수)

"예천의 재가불자들의 신심은 매우 돈독한 편입니다. 정법수호를 위해 일과 몸,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수남 회장은 9년 전 예천불교연합신도회를 창립하면서 예천지역 재가불자들을 하나로 모은 장본인이다. 1984년 용문사 화재 이후 용문사 복원불사 추진위원장에 위촉되면서 신심이 깊어졌다. 사암연합회가 종단과 종파를 초월한 지역 스님들의 협의체로서 지역불교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재가불자들의 연합체로 지역불교활동을 의욕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예천 군수로서 불교문화재를 발굴, 보존 정비해 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발로 뛰며 청년불교 힘모아

이상구 거사 (문경불교청년회장)

"문경에 있는 모든 사찰이 우리 젊고 법당입니다." 92년 대불련 활동을 통해 불법과 인연을 맺은 이상구 회장은 문경지역 어느 사찰이든 행사가 있으면 즉각 달려간다. 또 스님들도 불교청년회 일이라면 적극 나서 힘을 모아준다. 지금까지 문경불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굴러왔다. 최근 문경불교청년회는 문체부에 등록했다. 미래불교를 이끌어 나갈 후배불자가 나서질 않고 있는 것. 이 회장은 이 문제점을 풀 대안으로 2002년까지 23년 동안 이어왔던 반아불교화생회의 부활을 꿈꿨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뛰고 있다.

